

## “한국의 전통적인 세계관 비판” 동양철학(유교)의 세계관 비판

◎ 문석운 (경희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아시아, 적어도 중국과 한국의 사상 문화 전통에서 유교(儒敎)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이 옳다고 생각한 관념들 중 대부분이 유교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인격 수양 곧 수신(修身)을 인간다움의 근본이자 지도층의 조건으로 강조한다거나(『대학(大學)』), 신분예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도리로서 부모에 대한 효(孝)를 중시하고 그것이 살아계실 때 잘 봉양(奉養)하는 것뿐 아니라 사후(死後)의 상례(喪禮)와 제례(祭禮)를 통해 외적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한다(『논어(論語)』, 『맹자(孟子)』)고 생각하는 등은 전통시대의 상식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러하다. 유교는 전통시대 동아시아인들의 살아가는 방식을 방향지운 결정적 관념체계를 제공하였다.

유교 혹은 유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지식, 또는 이 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절대적 세계에로의 초월 혹은 구원에 있지 않았고,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선(善)의 실천에 있었다. 물론 선의 실천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더라도,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반성적 질문을 빠뜨릴 수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세계와 인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적 해명 또한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른바 그들이 지향한, 성인(聖人)으로 표현되는 도덕적 완성자의 경지는 종교적인 구원의 성취에 비견할 만한 점들이 있었다.

유교는 윤리적 실천을 지향한 세속적 이념체계였지만, 분명 천(天)과 조상신(祖上神)을 숭배하는 종교로서의 성격 또한 지니고 있었다. 천(天)은 고대 동아시아의 정치적 통합을 지지하고 인간세계와 자연세계를 통괄적으로 주재하는 어떤 인격적 신성(神性)으로 여겨졌다. 그것의 보편적

이고 유사-인격적 특성은 마테오리치(Matteo Ricci:1552~1610)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 선교사들로 하여금 한때 그것을 기독교의 신성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하도록 하였다.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에 대한 번역어로 ‘천주(天主)’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천은 창조주라고 보기 어려우며, 어떠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대상은 아니었다. 천에 대한 제사인 교제(郊祭)는 천자(天子)에 의해서 독점되었으며, 그것은 천자를 정점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정치적 질서를 제의(祭儀)적인 방식으로 확인하고 정당화한다고 하는 정치적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조상에 대한 제사가 가족 내의 가부장(家父長)에 의해 집행되고, 그것이 그에 참여하는 가족 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확인하고 결속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따라서 천과 조상신을 모시는 종교로서의 유교는 기존의 정치사회적 질서와 긴밀하게 결합해 있는 공동체 종교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개인적 구원을 추구하는 구원 종교는 아니었다.

유교에서 개인적 자아는 오직 공동체적 자아의 일부로서, 공동체를 통해서만 온전히 자신을 실현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공동체를 떠난 개인의 추구는 이기적인 것이라 비난되었으며, 공동체도 또한 그러한 개인적 안녕과 완성을 지원하는 데 그 본질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유학자들은 인간은 본성 상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지향한다(性善)고 생각했으며, 국가는 확대된 가족이고, 군주는 백성의 어버이로서 하늘로부터 복지와 교육의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성인(聖人)은 또한 이상적 군주로서, 그러한 공동체성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실현하는 자이다. 『맹자』 결국 유학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이요, 그와 지극한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윤리적 실천의 중심은 자기 극복과 순응(順應)이었다.

조화(調和)는 인간적 삶의 이상인 동시에 자연의 본질로 이해되었다. 자연 혹은 우주는 지극한 조화를 구현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우주는 무한한 시간 속에 펼쳐져 있으면서, 대립하는 두 가지 힘—하늘과 땅, 혹은 음(陰)과 양(陽)—의 조화로운 상호작용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生成)과 소멸을 반복한다(『주역(周易)』). 즉, 우주는 어떠한 외재적 원리나 창조자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스스로 조화하면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자족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인간은 자연을 변형하고 이용하지만, 또한 그의 일부로서 자연 세계내의 조화를 실현하고 확장한다. 그것은 곧 만물일체(萬物一體)의 실현으로서, 우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공동체성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우주 공동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유교에서 인간은 육체와 혼백(魂魄)의 결합으로 이해되었다. 죽음을 혼백이 육체를 떠난 것, 혹은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것으로서, 혼(魂)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魄)은 땅에 머물거나 지하로 내려간다.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자연세계의 운행 중에 여러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일어난다. 그것을 명(命) 곧 운명이라고 한다. 그들은 운명론을 어느 정도 허용하였다.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이의 혼과 백은 백을 상징하는 신주(神主)에 혼이 내려와 일시적으로 결합한다고 여겨졌지만 그의 개체성은 그리 확고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혼과 백은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영혼의 불멸성에 대한 관념 또한 확고하게 존재하지 않았다.

유교의 인간 이해에서 더욱 중요한 개념은 심(心) 곧 마음이다. 본래 심장을 형성한 글자인 심은 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외부세계를 인지하여 수용하고 판단하며 사유하는 지각(知覺)적이며 정신(精神)적인 활동 일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주체, 곧 자아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마음은 한편으로 신체의 일부로서 자신이 소속된 개체적 신체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이 부여한 성(性)으로 말미암아(『중용(中

庸)』) 개체성을 넘어 전체 혹은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 하면서 그의 보존을 지향하는 실질을 한다. 전자를 인심(人心)이라고 하고 후자를 도심(道心)이라고 한다.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희미하다. 오직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지키며, 진실하게 그 바름[中]을 잡아야 한다.'(『서경(書經)』)라고 하는 것은 마음 수양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계속 음미되어져 왔다. 마음은 신체를 지배하고 인심을 도심으로 돌이키는 자기 주재적(主宰的) 활동을 하지만 또한 결국 신체에 의존해 있는 것으로서, 신체의 소멸과 함께 소멸된다. 마음은 결코 영혼과 같은 어떤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으며, 영혼의 기능 혹은 영혼에 소속된 어떤 것도 아니었다.



죽음과 함께 개인적인 모든 것이 소멸되지만 유학자들은 죽음을 결코 심각한 어떤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나름대로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개인의 신체는 소멸하지만 공동체는 남아 있다. 그리고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후손들이 남아 있다. 자신의 생물학적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는 그러한 생물학적 연속과 제사 행위를 통한 그에 대한 기억의 지속을 통해 우리는 일종의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즉, 핏줄이 이어지는 한, 그리고 제사 행위가 이어지는 한, 죽은 자는 현실세계 속에서 영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후손에 의해 봉행되는 조상에 대한 제사는 곧 그러한 생물학적 연속의 확인이며, 또한 죽은 자가 여전히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남아 있음을 보증하는 의식이다. 그를 통해 개인이 영속적 삶을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동체의 결속 또한 강화된다. 그런 점에서 유교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교회이며, 효(孝)와 제(悌)와 자(慈), 곧 공손과 가족애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격률들이 교리이고, 조상에 대한 제사가 핵심적인 의례가 된다.

유교에는 삶에 대한 궁극적 부정의 관념이 없으며, 이 삶의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세계도 상정하지 않았다. 사후 세계는 현실의 삶의 세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어떤 열망도 없다. 유학자들에게는 삶의 세계가 유일한 세계이며 모든 선한 것들은 이 삶의 세계에 속해 있으며 이 삶의 세계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현실세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삶의 장인(匠人, 기술자 혹은 예술가)이었다. '성(誠)'은 진실하고 거짓 없는 삶의 모토이다. 유학자들은 그것을 봄·여름·가을·겨울로 이어지는 자연 질서의 진실함과 통하는 것으로 여겼으며, 성(誠)을 추구하는 삶을 그러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으로 여겼다. 이것은 또한 그러한 우주적 질서에 대한 경외의 태도, 곧 경(敬)과 통하는

것이였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서, 개인적 자아는 자신의 윤리적 실천을 통해 우주적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유교의 또 하나의 종교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가 중요시한 가치들은 근대 시기에 들어서 일반적 이성의 관점에서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나 또한 많은 비판과 도전을 받았다. 인권 관념의 미성숙, 권위주의, 혈연과 지연 학연 중심의 연고주의와 패거리 문화, 가족이기주의, 노동과 기술 및 개인적 창의성의 가치에 대한 경시 등은 그 본래적 의도와 관계없이 유교적 가치에 뿌리를 둔 악으로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을 왜곡시키는 힘을 어느 정도 발휘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적 실천에 대한 강조, 그와 관련하여 공동체의 역할과 조화를 중시하며, 삶에 집중하는 것 등은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모든 윤리적 가치와 공동체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시는,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시자 그 모두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와의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즉시 사악한 자기 집중이며 지극한 악이 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러한 점이 그들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하겠다.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유교가 중시한 가치들은 한편으로 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기독교인은 그들 이상으로 삶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바로 그러한 시각에서도 더욱 진실하고 더욱 조화롭고 더욱 개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장인(匠人)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비웃음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의 창조주이며 기초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 해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석연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朝鮮 後期 湖洛論辨의 成立史 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명지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유교와 기독교'、『신앙과 학문』(3권, 1998), 『중국 사상의 생명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 2000, 콜란출판사) 등이 있다.